■ 9월 정기국회 쟁점과 전망

청문회·국감·4대강 예산 공방 예고

개헌·각종 민생법안 쟁점 현안될 듯
대북 쌀지원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다음달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일단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전격 사퇴, 격화일로였던 인준 정국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일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후속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한 만큼 정기국회 초반은 '인사청문'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국무총리 낙마라는 성과를 거둔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를 강화할 태세인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여야 간의 팽팽한 초반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의 엇갈린 성적표와 인준 정국의 파고를 거친 여야는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감 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당장 국감 시기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월11~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추석 연휴 직후인 9월27일부터 국감에 착수하는 등 조기에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0월3일 전당대회 이후 국감 착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이후에는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친(親)서민 정책 강화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사업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조정을 통한 민생 및 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 대북 문제, 각종 민생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 현안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대북 쌀 지원 문제도 대북관계 개선 등과 맞물려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전망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농협법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개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공개토론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청문회 줄사퇴 이끈 박지원 주가 급상승

국정경험 살려 치밀한 공략… 전대 앞두고 역할론 주목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풍부한 국정경험을 토대로 치밀한 전략적 공략에 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비대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증폭시키게 만든 김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골프 회동 제보를 입수, 정보통으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김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일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자는 여권 일각의 '빅딜론'에 대해 오히려 강경한 원칙론을 내세워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내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초당적 공조 체제를 구축, 인사 청문위원들의 화력을 배가시켰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박 원내대표의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당장,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당내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당권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구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다"며 "당장,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의 줄사퇴 이후 '숨 고르기'에 나서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 관철을 위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총리는 '공정사회' 적임자로

김황식·이석연·조무제·전재희 등 거론

도덕성 집중 검증

청와대는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걸맞은 삶을 살아온 인물인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재발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퇴색할 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원점에서 후보군을 물색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도 비교적 경력 및 주변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전직 관료나 법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총리 후보로는 김황식 감사원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무제 전 대법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주변에서 '도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질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야당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황식(장성) 감사원장과 이석연(정읍) 전 법제처장은 현 내각에서 보기 드문 호남 출신으로 국민통합과 소통의 전도사로 내세울 수 있고, 조무제 전 대법관은 '청빈'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상징성을 지녔으며, 전재희 전 장관은 '여성 카드'라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 지사,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진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내정자 자리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정청 소통·인사검증 시스템 강화

與 청문회 후유증 수습·정국 타개책 착수

여권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등 3명의 자진 사퇴 이후 수세에 몰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청 소통 강화와 생활밀착형 친서민 정책의 확대,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 등이 그 골자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30일 "집권 후반기 핵심 가치이자 과제인 '공정한 사회'를 사회 전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당정청이 합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청 수뇌부가 전날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등의 사퇴 이후 민심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도 향국 정국 타개를 위한 당청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당분간 흐트러진 전열 정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후임 총리와 장관 인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감안한 엄격하고 실질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깜짝인사'가 아닌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내부의 결속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제기될 당청간 올바른 관계 정립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 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교체 요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태호 후보자의 낙마 불가피론을 언급하며 '청문인준' 정국의 물꼬를 되돌려놓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들은 김 후보자 등 3명의 후보(내정)자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민주당 정통성 계승할 사람이 당 대표돼야"

광주 방문 정세균 전 대표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는 30일 "오는 10·3 전당대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초석 마련을 위해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할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를 방문,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의 대표는 민주당의 역사이고 자존심이고 민주개혁세력의 상징"이라며 "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동안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외길을 지켜와 민주정부 정통성을 계승할 사람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차기 당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이룰 역량이 있어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세력한테 환영을 받아야 한다"라며 "차기 전당대회는 계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하고, 서로 흠집 내고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잠재적 대선 후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설에 대해 정 전 대표는 "연대는 정치공학적이고 지금 시대에는 잘 안되지 않으냐"며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주변 지지 의원들이 손 대표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들어보긴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영수회담 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었다"며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남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당당하게 표현할수 있는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1 교육목표 :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 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 2010년 9월 10일(금) ~ 12월 17일(금) (15주)
※ 교육요령 :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5 교육과정 :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각종선거, 농협조합장 노조위원장 출마연설문 작성및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0년 7월 28일(수) ~ 8월 27일(금)
- 등록시간 : 월 ~ 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 4층)
7 등록방법(수강료 :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8 수료 후 특전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선거연설원 파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9 담당교수 : 한 상 택
- 한국웅변연설인중앙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전라남도지사 후보 유세본부장
- 대통령상 전국웅변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 말하기 교본, 스피치 웅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 062) 670-2167, 2168
FAX : 062) 670-2475 HP: 010-5692-9998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 / 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연수목적 : 한자·한문 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교사 양성
◉ 연수대상 : 남·녀·노·소 18세이상
◉ 모집기한 : 2010년 7월 28일(수) ~ 2010년 8월 31일
◉ 수 강 료 : 300,000원 『농협 175375-56-065137 이종순』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접 수 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교육과정

개 강 일	교 육 과 목	연수기간·수업시간
(11기) 한자지도사 토요반 : 9.4(토)14:00 월요반 : 9.4(월)09:20	· 부수해설, 사자소학 · 1,800자(상용한자)자원풀이 · 중학교한문교과서 문법 지도 · 중학교 한문교육과정 해설	2010년 9월 4일~ 2011년 2월 12일(24주) 토요반 14 : 00~18 : 00 월요반 09 : 20~13 : 00
(2기) 한문지도사1급 월요반 : 9.5(일)14:00	· 소학·대학 · 격몽요결·중용	2010년 9월 5일~ 2011년 2월 14일(24주) 일요반 14 : 00~18 : 00
한문지도사특급 토요반 : 10.2(토)14:00	· 논어·맹자 · 고문진보	2010년 10월 2일~ 2011년 3월 12일(24주) 토요반 14 : 00~18 : 00

※중앙연수원과 동일한 교재로 명강의를 합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 · 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강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 · 구청 · 문화 · 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강사
- 한문학원 개설 및 한자 · 한문지도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은 방과 후 학교 지도강사 임용의 제출 서류입니다.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광주시교육청특수분야(한자 · 한문)직무연수기관
한국한자 · 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8월 1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3.5% 인상 태양광 설비로 대비하십시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

우리집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겨요!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기존 3.0kw 이하 설비용량 추가설치 가능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3,05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설치장소 : 주택, 상가, 마을회관, 공장 등

3년 무상 A/S
하자 보수증발급
2.0kw~3.0kw 기준
560만원~740만원 설치

상담문의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062)268-5118 / 011-9435-0441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